

三陰三陽經脈의 發生과 機能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朴贊國

1. 緒論	167
2. 本論 : 三陰三陽의 機能分割	167
1) 氣場을 여는 少陰과 太陽	167
2) 氣를 버는 太陰과 陽明	169
3) 氣를 거두는 陽明과 太陽	171
4) 氣를 調節하는 厥陰과 少陽	172
3. 考察 및 結論	173

KYOBO
교보문고

三陰三陽經脈의 發生과 機能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朴贊國

ABSTRACT

The Generation and Function of the three *Ŭm* and three *Yang* meridian

Meridians are often defined as passway of Ki and Blood or something that can control functions of the body. It is true but I think meridians have something more than that. Meridians are not just passway of Ki and Blood, rather they receive Ki from outside and transform it into Essence-Ki(精氣). If we draw a line in a body, we have Chang-Pu inside and meridians outside. Chang-Pu which is inside our body hold Essence-Ki and manipulate it. These Chang-Pu also have variation of Ki accumulation-Tai-Yang, Soyang, T'aeŭm, Soŭm. Nevertheless, their gradients are not great so Ki flow among them are not great either. If there are much Ki flow in our body there will be much Ki consumption resulting in exhaustion of Essence-Ki, which is very hard to acquire. Therefore Chang-Pu keeps less gradient by not moving Ki a lot to preserve Essence-Ki. Chang-Pu, inside, are suitable for storing Ki while meridians, outside, are for producing Ki. Meridians have great difference in Ki accumulation so there are great flow of Ki. This nature is suitable for producing Ki. For example, roots and limbs of a tree don't have much gradient in Ki. They are concentrated and their shape are not very distinct. On the other hand, leaves are wide and it's easy to tell front from back. It means their Ki gradient is great and their Ki flow is also great. Therefore they suitable for producing Ki. Just like this, meridians in our body are suitable for producing Ki. Areas that meridians cover are much wider than that of Chang-Pu. Four limbs and surface of our body are very distinctive. Ulnar side is high in Ki accumulation but is small in volume so it's better to store Ki there. Radial side is low in Ki accumulation but big in volume so it's better to receive and consume Ki there. Meridians are deeply involved in producing and storing Ki.

1. 緒論

우리들의 藏府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은 아니지만 藏府의 機能이나 形態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肝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肝은 五行의 木에 속하는 臟器로 發生을 주관하는데 아울러 血을 藏하며, 疎泄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거나 또는 한방적 지식이 모자라면 서양의학을 동원해서라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經絡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면, 단지 氣血의 통로로서 人體를 營衛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개괄적 설명은 하고 있으나, 三陰三陽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면 대답이 시원치 못하다. 즉, 각 經穴의 穴性에 대하여는 옛부터 내려오는 내용이 있었지만 經絡 자체에 대한 설명은 확실치 못하였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經絡의 명칭은 三陰三陽을 쓰고 있으므로 三陰三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곧 經絡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論文에서는 三陰三陽과 經絡을 함께 생각하여 經絡의 기능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 보려고 한다.

2. 本論 : 三陰三陽의 機能分割

人體를 구성하는 物的 요소로 본다면 精神氣血과 津液 등이고, 일을 담당하는 氣的 요소로 본다면 아마 藏府와 經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藏府는 人體의 內를 관장하는 기관인데, 藏은 神을 갈무리하여 人體의 모든 활동을 통괄하고 아울러 精을 가지고 府와 經絡을 다스리고 있다. 이에 비하여 府는 五藏의 통제하에 津液을 관리하여 氣血의 생성에 관여하고 있다. 經絡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藏과 府에 뿌리하면서 이들을 외부의 皮膚筋脈에 연계시켜 人體가 津液과 氣血을 가지고 陰陽五行 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돕는다. 이를 다시 요약하여 말한다면 藏府는 精神氣血津液의 운행 중에서 精神氣血 등 보다 내적인 것의 운행에 많이 관여하고, 經絡은 이들 중 氣血津液 등 보다 외적인 것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藏府는 보다 내적인 요소를 다루는 곳이므로 藏府 간에 陰陽太少의 偏差가 적어 圓融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비하여 經絡은 氣血津液 등 외적인 요소를 많이 다루므로 藏府에 비하여 陰陽太少의 偏差가 커서 모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藏府는 분화가 아직 미진한 반면에 經絡은 분화가 더욱 진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는 三陰三陽을 三合 즉, 少陰과 太陽, 太陰과 陽明, 厥陰과 少陽으로 나누어 그 기능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물론 素問의 陰陽離合論은 少陰을 樞로 하고 厥陰을 闔으로 하여, 少陰과 太陽을 合으로 하고, 厥陰과 少陽을 樞로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단순한 氣血의 순환만이 아니라 精氣의 순환까지를 염두에 두었으므로 少陰을 闔으로 보는 방법을 택하였음을 밝혀 둔다.

1) 氣場을 여는 少陰과 太陽.

발생학적으로 보면 수정란은 그 발생 과정에서 바깥포배판이 세 번 접히는 과정을 겪는다. 그 첫 번째가 뒤에서 바깥포배판에 원시선이 생기면서 접혀가지고 척삭돌기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를 한의학적으로 보면 〈素問〉陰陽離合論의 前曰廣明 後曰太衝 중 後曰太衝에 상관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經絡學的으로는 督脈 및 足太陽經의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그림 2. 이광호 등, 사람발생학, 한국 에스티엠, p.66)

두 번째는 바깥포배판이 前面正中線을 형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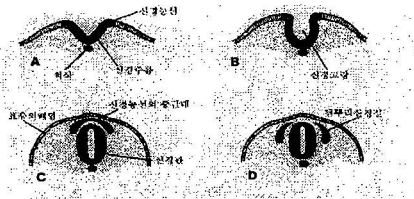


그림 18. 신경주름, 신경고랑, 신경관형성의 연속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가로단면.

면서 앞으로 접히는 과정인데 그 접히는 모양을 보면 뒤에서 접힐 때는 원시선이 생기면서 흠이 파였다가 모이면서 척추 부분이 생기지만 앞으로 접힐 때는 전체를 감싸려는 듯이 벌어졌다가 크게 접힘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前日廣明과 상응하여 經絡的으로는 任脈과 少陰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그림4. 사람발생학 p.70, p73)

이렇게 하여 뒤에는 陽極이 생기고 앞에는 陰極이 생기게 된다. 즉, 人體가 陰陽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뒤쪽의 正中線을 따라 흐르는 經脈을 督脈이라 하는 것은 陰陽 운동을 監督 指示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깥포배판이 오므라들면서 척추 부분이 생기므로, 이 부분이 모든 가닥이 모이는 부분으로 人體 운동이나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앞부분은 널리 퍼졌던 부분의 좌우가 다시 결합된 부분으로 좌우가 손을 잡고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는 부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의 正中線을 따라 흐르는 脈을 任脈이라 표현하였고,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는 五臟六腑도 모두 앞면에 위치한다. 즉 人體는 크게 앞면과 뒷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뒷면은 원시결절에서 발달하여 척삭을 만들고 더욱 자라서 머리를 형성하여 人體를 指揮 監督 調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즉, 인체의 실질적인 활동인 호흡, 음식, 소화, 순환, 生殖, 排泄, 등이 모두 五臟六腑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를 觸動하고 抑

制하고 調節하는 기능은 모두 뒤에 있는 부분과 머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곧, 이러한 뒤의 부분이 지금 해부학적으로 말한다면 모두 신경계통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경은 인체 운동의 調節 기능을 담당하므로 모두 근골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기능이 모두 神과 氣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任脈으로 대표되는 앞부분의 일은 모두 精血로 이루어지므로 五臟六腑는 대부분 일정한 형태를 갖추어 精血을 장하고 있다. 少陰은 바로 任脈과 이웃하고 있으면서 氣의 출입을 맡고 있으므로 少陰은 또 任脈에 비한다면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경이다. 太陽도 督脈과 이웃하고 있으면서 氣의 출입을 맡고 있으므로, 太陽은 또, 督脈에 비한다면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經이다. 그러므로, 任脈과 督脈은 奇經에 속하고, 少陰과 太陽은 正經에 속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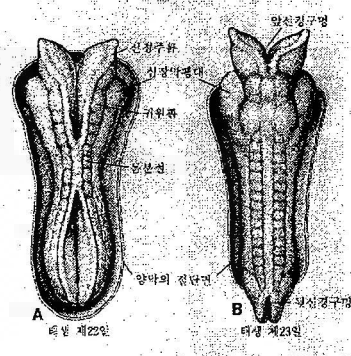


그림 19. A. 태생 제22일의 사람배자 등쪽 모습. B. 태생 제23일의 사람배자 등쪽 모습.

모든 사물의 변화는 氣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氣가 集積되면 形質이 나타나므로, 形質의 변화로 氣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다. 少陰과 太陽이 極을 만들어 氣場을 여는데, 실제로 기가 少陰에서 太陽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形質을 갖춘 精이 少陰에 있다가 厥陰의 推動을 받아 精에서 氣가 나오면 太陰으로 자랐다가

, 다시 少陽의 작용으로 타기 시작하여 陽明으로 변하고, 다 타면 太陽이 되고, 이 타는 중에 다시 精이 생성되어 순환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에서 少陰과 太陽의 역할은 바로 少陰과 太陰 및 少陽과 太陽의 陰陽太少의 偏差를 될 수 있는 한 크게 벌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陰陽太少의 偏差를 크게 하는 것인가? 이 偏差를 크게 하면 할수록 체내의 氣의 운동이 활발해져 건강하고 長壽할 수 있을 것이다. 人體에 있어서의 그 비밀은 알기 어려우니, 人體 외의 다른 것에 비유하여 짐작할 수밖에 없다. 즉, 企業의 生産品이 잘 팔리어 이윤이 크게 남는 것이 바로 人體의 陰陽太少 偏差가 커지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 企業의 商品이 잘 팔리려면 우선 품질이 우수하고 판로도 잘 개척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우수한 企業의 經營論理를 잘 이해하는 것도 이 偏差의 확대방법을 이해하는 한 方便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운동이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陰陽運動의 速度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도 또한 이 偏差 확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운동은 陰에서 發生된 氣를 그냥 쓰지만 할 뿐 다시 精으

三陰의 변천 순서는 少陰 厥陰 太陰으로 하기도 하고, 厥陰 少陰 太陰의 순으로하기도 한다, 厥陰과 少陰이 바뀔 수 있는 것은 精을 가지고 있는 자를 앞으로 할 것이나 精을 推動하는 자를 앞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므로 대단하지 못하다. 이에 비하여 三陽은 少陽 陽明 太陽의 순이다. 그러므로, 三陰三陽을 함께 말하면 少陰 厥陰 太陰 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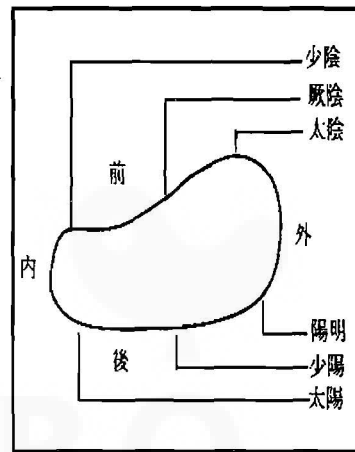


그림 21. 전완의 단면도.

陽 陽明 太陽의 순이 되므로, 少陰에서 시작하여 太陽에서 끝이 난다. 그 중간에 厥陰 太陰 少陽 陽明이 있으나, 厥陰과 少陽은 氣 자체의 변화라기 보다는 변화를 추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는 太陰과 陽明인 것이다.

그러면, 그 변화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왜 陽보다 陰이 먼저 나와야 하겠는가? 三陰三陽의 변화의 목적은 氣를 벌어들이는 일인데, 氣를 벌어들여야 외부에서 氣를 받아들일 바탕이 필요한 것이다. 즉,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식물이 있을 피는 것은 햇볕을 받아들이기 위한 바탕을 만드는 것과 똑 같다. 즉, 人體도 나무의 잎과 같이 몸에 少陰 太陰 등을 만들어야 氣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少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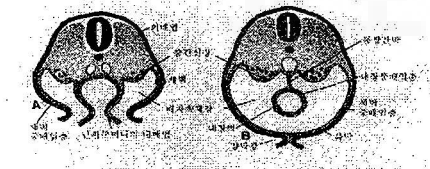


그림 20. A. 중간신장부위에서 태생 제21일 배자의 가로단면. B. 4주말의 단면.

로 合成하는데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偏差를 늘리는 데에는 氣功이나 坐禪 등이 훨씬 효과적이다. 즉, 氣功이나 坐禪은 人體에서 氣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거두어들이는 운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氣를 버는 太陰과 陽明.

보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물론 太陰과 陽明에서 벌어들이는 氣는 매일 일상의 생활에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다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으면 후일을 위하여 몸속에 저장을 하여야 한다.

밖에서 氣를 흡수할 때 무작정 氣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난 직후에는 배가 부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부른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를 우리는 소화되었다고 하는데 실은 氣가 縮小되어 흡수된 것이다. 論者가 정확한 縮小의 비율은 알지 못하겠으나 음식물에 있던 氣는 人體에 흡수되면서 縮小된다.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 본래 식품에 있던 氣는 어느 정도 縮小되어 있던 것들이다. 쌀밥을 예로 든다면, 쌀 속에는 氣가 縮小되어 貯藏되어 있다. 그러나, 이 氣는 우리가 그냥 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물을 붓고 불을 때서 그 물체를 부풀리고 또 찹이나 물을 섞어 잘게 부수어 먹는다. 음식물이 腸内に 들어가면 부피가 클 수밖에 없다. 이를 腐熟시켜 氣를 취할 때는 또 다시 인체가 氣를 縮小시켜 흡수하고 썩거기도 축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배가 부른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일단 縮小되어 흡수된 氣는 津液이나 氣血의 상태로 존재한다. 즉, 津液으로 존재할 때는 우리 몸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氣를 공급하는 資源이 된다.

그러나, 기가 이렇게 津液이나 氣血으로써 사용되지만 사용된 후에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 人體는 이 津液과 氣血을 消耗하면서 더욱 氣가 集積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때 集積된 氣는 단순히 외부에서 흡수된 氣와는 다르다. 외부에서 氣를 흡수할 때는 아무 때나 수시로 할 수 있었지만, 이 氣血을 소모시켜만 들어내는 氣는 일정한 날자와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이 氣를 우리는 精이라 부르는데, 이 精은 단순한 氣가 아니라 生命力이 부여된

氣이므로 상당한 절차를 겪어야 한다.

즉, 사람으로 예를 들면, 남자는 $2 \times 8 = 16$ 이 되어야 비로소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을 만들 수 있고, 여자는 $2 \times 7 = 14$ 가 되어야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2) 또한 이러한 능력을 비록 갖추었다하나 精을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즉, 精은 단순한 氣의 集積物이 아니라, 여기에는 神이 깃들여 있으므로 陰陽五行의 변화를 겪은 후에야 그 생성이 완성된다. 식물이라면 적어도 일년 가까운 시간을 요하고, 동물이라면 몇 개월의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사람은 갖춘 精神이 워낙 강하여 스스로 陰陽과 五行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수일 내지 1개월 내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함부로 精을 쓰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어렵게 생성된 精이므로 물론 그 쓰임도 매우 중요하다. 즉, 人體의 生命力을 보존하는 일이나, 人體를 經營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五臟 등의 氣의 資源으로 쓰이고 있다.

즉, 精에는 스스로 陰化나 陽化할 수 있는 기능과 五行運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독립적으로 개체를 營爲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津液이나 氣血보다는 氣의 集積도가 높고 神이 깃들여 있으므로 그 생성 과정도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陽明과 太陽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陽明은 주로 氣를 흡수하여 氣血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太陽은 이를 다시 한번 태워서 노폐물은 버리고 精微한 氣를 모아 精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고 본다. 즉, 陽明은 太陰과 表裏가 되어 氣의 일차 集積을 담당하고 太陽은 少陰과 짝이 되어 氣의 이차 集積에 관여하고 있다는

2) 素問 上古天眞論; 二七而天癸至 任脈通太衝脈盛 月事以時下 二八 腎氣盛 天癸至 精氣溢竅 陰陽和 故能有子……

것이다.

4) 氣를 調節하는 厥陰과 少陽

厥陰과 少陽經이 흐르는 것을 보면 대체로 太陰과 少陰사이로 厥陰經이 흐르고, 陽明과 太陽사이로 少陽經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開闔樞 理論으로 보아도 이 두 경이 氣를 調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氣를 調節하는가를 생각하여 보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厥陰은 少陰과 太陰사이로 흐르고 있지만, 三陰三陽의 변화를 설명할 때는 厥陰, 少陰, 太陰의 순으로 말하고 있다. 즉,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少陰에 精氣를 藏하여 太陰과 대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면 그 사이에 厥陰이 끼어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지만, 少陰 속의 精이 氣로 化하는 데에는 먼저 厥陰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바로 精氣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4~16세가 되어야 精氣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기간을 厥陰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厥陰이라 하면 고사리가 아직 잎을 피지 않은 것과 같이 人體의 陰氣가 아직 퍼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일단 厥陰이 끝나고 少陰이 들어오면 厥陰은 少陰과 太陰의 사이에서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기능이 바뀌게 된다.

少陽의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형질을 갖추어 精을 생성하기 전에는 少陽相火가 太陰濕土보다 먼저 들어오고, 精을 생성하기 시작하면 相火와 濕土의 위치가 바뀌고 相火는 한 걸음 더 나가 陽化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厥陰은 少陰과 太陰의 사이에 있어 太少의 균형을 잡아 주기도 하지만 少陰에 앞서 작용할 때는 陰에서 陽으로의 변화를 조절하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少陽도 陽과 陰사이의 변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즉, 少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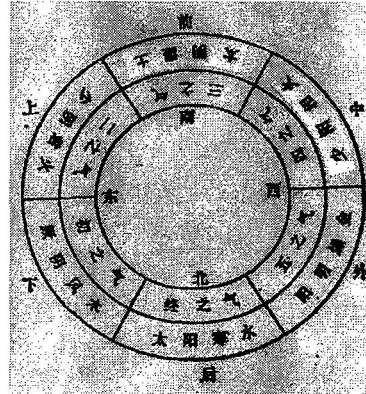


그림 9. 객기도, 절음,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순으로 순환한다.

단순히 陽明과 太陽의 사이에서 半表半理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三陽과 三陰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8, 그림9.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393p)

3. 考察 및 結論

經絡을 단순히 氣血의 通路로 정의하거나, 人體 機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經絡에는 물론 이러한 機能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經絡의 근본 목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즉, 經絡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氣를 받아들이고 이를 다듬어 精氣를 만드는 데에 있다고 본다. 사람을 크게 內外로 나누면 내에 속하는 藏府와 외에 속하는 經絡으로 볼 수 있다. 내에 속하는 藏府는 주로 精氣를 감추고 또 이들을 운행하는 곳이다. 이들 藏府에도 太少陰陽의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精氣를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營爲하고 있으므로 太少陰陽의 偏差가 그리 크지는 못하다. 만약 太少陰陽의 偏差가 크면 氣의 흐름이 빨라지고 따라서 精氣의 소모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精氣

는 그 생성이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이를 감당하겠는가? 그러므로 내에 속하는 藏府는 자연 陰陽太少의 偏差가 적어 氣의 흐름이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에서는 氣의 소모는 적으나 아울러 氣를 생성하는 데에도 적합치 못하다. 즉, 내는 외에 비하여 氣의 貯藏에 적합하고 반면에 외는 氣의 생성에 유리하다 할 것이다.

즉, 經絡은 내에 있는 藏府보다 陰陽太少의 偏差가 커서 氣의 소모도 많지만 아울러 氣의 생성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나무의 뿌리나 줄기는 陰陽太少의 偏差가 적다. 뿌리와 줄기는 나뭇잎에 비하여 뭉쳐 있고 前後左右의 구별이 심하지 않다. 이에 비하여 나뭇잎은 우선 면적이 넓어 기의 소모가 쉽고 아울러 前後의 구별이 뚜렷하고 중심부와 양쪽 변과의 차이도 심하다. 다시 말하면, 나뭇잎은 太少陰陽의 차가 심하므로 氣의 생성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經絡도 氣의 생성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經絡이 흐르는 四肢와 體表는 내부의 藏府에 비하여 우선 그 면적이 넓고 左右前後의 차도 심하다. 즉, 팔뚝을 보면 小指側과 大指側의 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소지측은 氣의 밀도가 높은 대신 부피가 작아 氣를 수렴 貯藏하기에 편리하고 대지측은 氣의 밀도가 낮아 氣의 흡수와 소모가 편리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經絡은 철저히 氣의 生成과 收藏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4. 參考文獻

1. 王琦 등,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1983, 성보사, 영인.
2. 朴贊國, 黃帝內經素問註釋(上), 서울, 1998, 경희대출판국.
3. 이광호 등, 사람발생학, 서울, 1992, 한국에

스티엠.

4. MOORE and PERSAUD, The Developing Human. U.S.A. 1998, W.B. Saunders Company.
5.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1984, 인민위생출판사